

군산형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 생태계 건강성 회복 입증

전기차 클러스터 협업기술 개발 매출증대... 일자리창출 기대

전북 군산형 일자리 국비 공모사업 4억원을 추가 확보하며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군산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에서 지역산업 및 일자리 전문가 7명의 엄정한 심사를 통한 사업계획 검토 평가를 받아 국비 4억원 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북도와 함께 기업수요 조사결과를 통하여 ①수요연계형 기술지원, ②협업 네트워크 및 사업회의 2개 분야 4개 사업을 발굴해 대응하였으며, 이번 선정으로 국비 4억원과 지방



비 4억원을 포함한 총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이 중견·중소기업으로 생산하는 차종이 대부분 소량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특성을 반영해 △소량 생산 적합형 생산 및 품질확보 기술, △기술 고도화 전주기 지원, △기업 간 협업 및 마케팅, △사

후 이행관리 및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 클러스터 확산을 위해 지원대상을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전후방 연계 부품기업으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관기관인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3월 중 20여건의 지원과제 및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사업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과 전후방 연관기업의 시너지 효과로 전기차 클러스터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익산 왕궁축산단지 주교체 수달 포획... 서식지 보호 시급

익산 왕궁축산단지에서 위치한 주교체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00호로 지정된 수달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시는 주교체 생태습지 복원 이후 수달 분변, 족적 등 서식 흔적이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무인카메라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해 수달의 모습을 포획하는데 성공했다.

수달은 물 환경이 건강한 하천에서 서식하는 식육목 족제비과에 속하는 포유동물로 수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종이다.

주교체는 수달 뿐만 아니라 맹꽁이, 두꺼비, 삵 등 유혈목과 범종보존종인 원앙, 여러 철새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생태하천복원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환경부(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익산시가 왕궁정착농원 현업·휴폐업 측사매입하고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는 등 생태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새만금의 주된 오염원으로 지목됐던 주교체는 지난 2017년 30년간 퇴적된 가축분뇨 3만9천 톤을 걸어내고 생태습지로 복원됐다.

하지만 생태습지로 복원된 주교체와 달리 주교체 상류에 위치한 용호제와 학평제는 여전히 가축분뇨가 퇴적되어 있으며 왕궁축산단지는 가축분뇨 유출에 취약한 재래식 축사에서 돼지 분뇨가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주교체 인근에 수달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오염원이 상존함에 따라 진여현업측사 매입, 용호제·학평제의 토양 오염원을 제거해 수달 서식지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14일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최하고 제254회 임시회를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연화·서동완·윤신애·이한세·한경봉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예산안 2건, 동의안 2건을 상정기로 했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올해 첫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꼼꼼한 심의로 군산 발전은 물론 시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원광대-자연식물원-원광대병원 무장애나눔길 '속도'

익산시-원광대 무장애나눔길 조성 업무협약 체결... 치유·희망 힐링공간 탄생 기대

익산시가 원광대학교 캠퍼스와 자연식물원 원광대학교병원을 잇는 무장애 나눔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장애나눔길로 이어지면 도심 속 자연식물원을 갖춘 산책로가 확장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 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 수준 캠퍼스를 자랑하는 원광대학교를 찾는 관광객, 학생,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힐링공간이 조성된다.

시는 지난 3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식물원(학교수목원), 원광대병원 캠퍼스를 잇는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기 좋은 산책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10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한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해 토지 사용 및 유지관리, 시민편의 제공 등에 대한 업무협의를 약속하는 자리였다.

또한 원광대학교는 무장애나눔길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동문게이트 입출차시 주차료를 평일 3시간 면제, 주말과 공휴일은 전면 면제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자연식물원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자연식물원(학교수목원)~원광대학교병원~원광대학교 4.3km 구간에 총사업비 20억원(국비 12억원, 시비 8억원)을 투입해 보행약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무장애 순환형 산책로가 빠르게 조성될 전망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시는 올 4월까지 목재데크, 황토길포장, 쉼터조성, 시설 정비 등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 1구간(자연식물원(학교수목원)~원광대학교병원 2.2km)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2구간(자연식물원(학교수목원)~원광대학교 2.1km)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은 "익산시 무장애나눔길 조성으로 익산시민을 비롯해 누구나 원광대 캠퍼스의 아름다운 조경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익산시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장자교 스카이워크 방문 후기 이벤트

군산시는 장자교 스카이워크 개통을 맞아 3월부터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후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군산군도에 위치한 선유도와 장자도를 잇는 장자교 스카이워크에 21억8천만원을 투입해 지난 1988년 완공된 길이 208m 기존 교량 일부 구간 확장과 기존 콘크리트 바닥을 강화유리로 교체했다.

또한 다가오는 4월에 경관조명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야경명소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고군산군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는 등 장자교 스카이워크가 될

수 코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개통한 장자교 스카이워크의 이색적인 볼거리를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이벤트는 개인 SNS를 소유한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방문 후기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 계정에 방문 사진(혹은 동영상)과 해시태그를 첨부한 장자교 스카이워크 방문 후기 글을 작성, 군산 문화관광 홈페이지 '장자교 방문후기 이벤트 게시판'에 개인정보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 이벤트 신청하면 된다.

/군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군산시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보조기기 38종을 지원한다.

시는 3월부터 장애인에게 일상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등록 장애인에게 목욕의자, 전동침대, 보행차, 기억 지원 보조기 등 38개 품목의 장애 유형별 보조기기를 지원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과 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에서 방문하여 자격기준 검토 후 시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에는 기존 36개 품목에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와 '기억 지원 보조기기' 2개 품목이 추가됐다. 특히 '기억 지원 보조기기'는 약 복용 일람을 통해 규칙적인 약 복용 및 과다복용을 예방하도록 도와주는 기기이다.

/군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위기의심가구 전수대응... 복지사각지대 해소

익산시가 위기의심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해 선제적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추출된 위기 의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사각지대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는 복지서비스 지원 필요와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동시에 설문조사 형식으로

운영했으며, 봉리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2만2,59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1월 담당공무원의 위기가구 판단 하에 개인별 복지 욕구에 맞춰 공적급여 신청, 민간지원 연계, 사례관리 지원 등 상담요원의 47%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했다.

사각지대 지원에 일등공신 역할을 해준 익산형 긴급지원(95건/2,700만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31건, 1,400만원)은 공적지원에 대한 공백(기준 중위소득 75~100%)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조사 중 설문조사 참여자 32%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본인 스스로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 대상자라고 생각한다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 유무의 질문에 22%가 '있다'라는 답은 특히 눈에 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신청 접수

군산시가 건강관리를 통한 여성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화 건강검진 신청을 실시한다.

시는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대상 지자체 공모 신청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은 근로계약에 부담이 많이 가는 맨손어업(갯벌에서 칼개를 이용해 바지락 등을 채취하는 어업)에 주로 종사해 어작업에 따른 직업질환의 유발률이 높은 여성의 건강관리와 예방·치료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대상 지자체 선정 공모를 통해 지역 균형, 여성어업인 규모, 참여 의료기관 확보 및 접근성 등을 감안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함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검진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만 45세 이상 여성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군산=이재춘기자

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대상 지자체 선정 공모를 통해 지역 균형, 여성어업인 규모, 참여 의료기관 확보 및 접근성 등을 감안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함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검진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만 45세 이상 여성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군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